

## 젖소의 사양관리기술과 질병예방

남 치 주\*

우리나라의 젖소두수는 늘어가고 있으나 조사료는 부족하고, 사양관리기술도 아직 부족하여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젖소 질병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낙농가는 과학적인 사양법을 잘 알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나라 젖소 질병 발생상황은 임과 정(1984)에 의하면 비유기계를 포함한 비뇨생식기계가 46.4%, 소화기계가 22.1%로 이 두 질병이 전체 질병 발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질병의 근본원인은 사료를 균형적으로 급여하지 않은데에 문제가 있다. 즉 조사료 부족과 배합사료의 과량 급여에 의한 심한 영양 불균형이 이들 질병의 유인이 된다.

비뇨생식기계 질환 가운데 번식장애는 낙농경영을 가장 곤경에 빠뜨린다. 일단 번식장애에 걸릴 것 같으면 송아지 생산이 어려우며, 아울러 젖 생산도 잘 되지 않아 치료에 상당한 돈이 지출되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도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번식장애의 병인에는 여러 경우가 있으며, 증상도 다양하나 결국은 오랫동안 사양관리상의 무리가 번식장애로서 집약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낙농가에게 두통거리인 번식장애는 과연 예방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료급여나 관리를 소의 생리에 맞게 하여 영양 불균형,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을 해

소함으로써 대부분의 번식장애는 예방할 수 있다.

번식장애와 영양과의 관계에 대해 관찰한 한 성적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즉 영양의 균형이 나쁘기 때문에 난소기능이 감퇴하거나 혹은 난소낭종을 일으키는 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번식장애와 사양관리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성적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즉 축사시설이나 관리 잘못으로 오는 운동부족과 그리고 농사료다급, 조사료 부족 등 사료급여의 결함이 주요한 번식장애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소는 조사료를 일년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급여하면 제 1위내의 미생물이 순조롭게 작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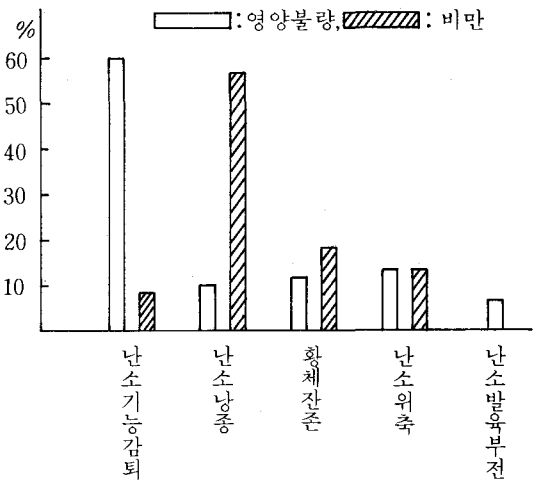


그림 1. 영양불량, 비만과 번식장애와의 관계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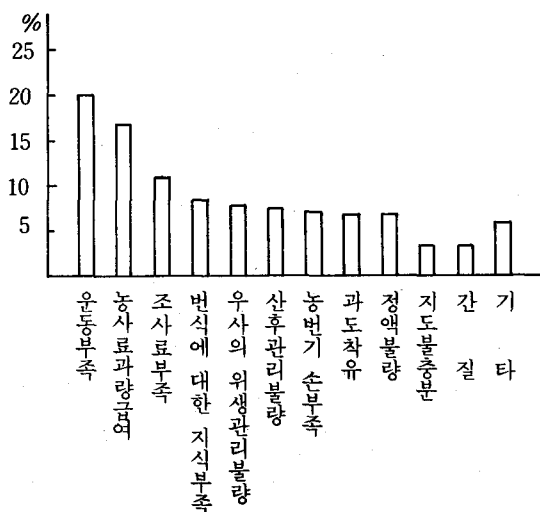


그림 2. 사양관리와 번식장해와의 관계

소의 건강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잘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초가 있는 계절에는 방목을 하거나, 배어서 급여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늦가을부터 겨울동안에는 조사료가 문제가 된다. 다행하게도 볏짚 이용방법이 개발되었으니 이를 충분히 급여함과 아울러 엔시레지를 충분히 준비하여 일년내내 조사료 중심의 사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조사료를 위주로 하고 능력에 따라 농사료를 적당한 양 보충 급여한다. 또한 조사료로 볏짚을 주로 급여할 때에는 각종 광물질도 보충 급여하여야 한다.

도시 근교에서는 맥주박 등의 박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를 적당히 이용하면 사료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맥주박은 두당 하루 10~15kg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많이 급여하면 영양장애(예: 산성증) 등의 원인이 되며, 네 다리에 부종이 생겨 기립불능이 되어 도태되기도 한다.

월별로 유량정도에 따라 사료계산을 하여 양분 급여량의 과부족을 검토하여 양분의 불균형으로 오는 만성적인 영양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낙농경영에 절대로 중요한 일이다.

젖소는 사료를 급여할 때와 착유할 때 이외에는 운동장에서 지내도록 해야 한다. 넓은 방목장이 있으면 풀을 뜯어 먹으려고 돌아다니므로 자연 적당한 운동이 되겠으나, 운동장이 좁으면 일광욕 효과는 있어도 본래의 운동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운동장이 좁을 때에는 보다 많이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간안내 ■

이장락 (李長洛) 역음 (編著)

수의약리학 (獸醫藥理學)

46배판, 양장, 660면, 11,000 원

1987. 2. 28 :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행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수의사회(서대문구 대현동 104-41)로 책값(11,000)과 송료(1,300)를 우편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